

사회

# 120mm 장맛비 광주·전남 곳곳 피해

## 빗길 교통사고 사망·아영객 고립 주택·상가 침수...17~19일 또 큰 비

지난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120mm의 장맛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이번 장맛비의 영향으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는 19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산사태 등 각종 피해가 예상된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내린 비는 광양(백운산) 120mm를 최고로, 광주 111mm, 담양 110mm, 나주 105mm, 장성 104.1mm, 함평·순천 101.5mm, 지리산(피아골) 93mm 등이다.

이날 자정부터 1시간 동안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집중됐으며, 전남 전남 18개 시군에 발표했던 호우주의보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비 피해 잇따라=15일 오전 7시 59분께 광양시 남해고속도로 옥곡IC 인근에서 모 산악회 소속 관광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 배모(46)씨가 숨지고, 김모(여·62)씨 등 9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오전 11시23분께 고흥군 풍양면 한 도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지게차가 배수로에 빠지면서 운전자 박모(43)씨가 숨졌다.

갑작스런 폭우에 아영객 고립과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 15일 새벽 0시20분께 담양군 수북면 쪽재골 계곡에서 아영하던 신모(57)씨 등 4명이 계곡에 고립됐다가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1시간 만에 구조됐다.

같은날 새벽 0시50분께에는 광주 시 북구 운암지하차도가 폭우에 잠

■광주·전남 주요지점 강수량 (14일 0시~15일 오후 3시)

지역	강수량(단위mm)
광양(백운산)	120
광주	111
담양	110
나주	105
장성	104.1
함평·순천	101.5
지리산(피아골)	93
무안	78.5
보성	66.5

겨 30여 분간 통제됐다. 이날 새벽 1시30분께 담양군 무정면에서는 오리농장이 침수되고, 같은 시각 북구 매곡동 한 목욕탕 지하에 물이 고여 소방서 구조대가 100여t의 물을 퍼냈다.

한편 광주소방본부에는 이날 자정부터 1시 사이에 집중된 비로 주택·상가침수 15건, 축대붕괴 2건, 도로침수 4건 등 모두 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비 얼마나 더 오나?=광주지방

기상청은 16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늦은 밤에 남해안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17일 대부분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17일까지 예상강수량은 5~30mm. 기상청은 이번 비가 19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높아지면, 비구름대가 습기를 머금을 수 있는 공기의 용량이 커지는 것을 감안할 때 주중에 집중호우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지난 1980년대에 비해 30%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상청은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다시 강한 비로 인해 산사태, 주택침수 등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4일 전남 22개 시군에 산사태 예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 나원침 (8609) 김종두



### 위증사범 징역형 잇따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허양운 판사는 최근 산업보건의안전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최모(5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해 9월22일 조카가 연루된 상해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안모(76)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전남 지역에 100mm 안팎의 비가 내린 15일 광주시 북구 용두동에서 마을 주민들이 굴삭기를 동원해 빗물에 무너진 농경지 제방을 보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종교에 빠진 딸 구하려... 전남대 후문 '여대생 납치사건' 해프닝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광주경찰 112에 급박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용봉동 전남대 후문 앞에서 검은색 에쿠스 차량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강제로 끌려갔다”며 “납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 여성 살해사건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던 경찰은 신속하게 대처했다.

경찰은 관할인 북부경찰에 ‘출동’을 지령했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납치 용의차량인 에쿠스가 고속도로로 진입한 사실을 확인, 고속도로 순찰대에 추적을 요청했다.

해당 차량은 전남지역을 벗어나 남원을 향해 도주했다가 사라져 버렸다. 이에 전북경찰에 공조를 요청하고 광주, 전남 등 경찰 50여명이 합세해 다시 추적이 나섰다.

그러나 무려 3개지역 경찰이 출동했던 ‘여대생 납치사건’의 전말은 사건 발생 약 4시간여만인 밤 9시경에 애초 차량에 타러다 못한 채 남겨진 여학생 어머니의 지인에 의해 밝혀지면서 맥이 빠졌다.

알고 보니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던 여성은 대학생 임모(여·21)씨로, 모종교에 심취해 있던 임씨를 어머니가 지인과 함께 ‘납치’하듯 데려가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다는 것이다.

15일 경찰 확인 결과 임씨는 어머니와 지인의 손에 이끌려 차량에 태워진 뒤 고속도로를 통해 정읍의 할머니 집으로 이동,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대낮 시내 한복판에서 여성이 납치되는 모습이 동영상과 함께 인터넷에 올라, 네티즌 사이에선 ‘범인은 잡혔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나’ 등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 화객선이나 여객선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화재 원인의 하나로 배에 시동이 걸린 채 적재된 차량이 거론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해경은 지난 13일 여수 소리로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화객선 파이오니아호의 경우도 불이 화물차량이 실린 공간에서 시작됐다는 승객들의 진술로 미뤄 사고가 화물차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파이오니아호는 탱크로리와 트럭 등 37대의 차량을 싣고 있었으며 해경은 수산물들을 운반하는 트럭 1대만이 유독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탄 것에 화인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활어 등을 운반하는 수산물 운반트럭은 실려있는 물고기에 산소공급과 기포발생 등을 위해 선박에 차량을 싣더라도 시동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공회전 상태가 장시간 이어지면 엔진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6일 여수 백도 해상에서 불이 난 대형 여객선 살롱호 화재 때도 실려있던 활어 트럭에서 발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과수는 이 차량에서 발생한 전기합선이 선상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감정했다.

현행 관련법은 차량을 배에 실을 경우 폭풍우 등에 따른 해상 추락 등

## 종교에 빠진 딸 구하려... 전남대 후문 '여대생 납치사건' 해프닝

## 선거사범 항소심도 잇단 유죄

19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들에게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자(여·65)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7일 광주시 광산구 모 중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모 포럼 강연회에서 19대 총선 민주당 통합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을 위해 사

## 카페리 차량 공회전 '위험'

## 선적 트럭 엔진 과열 추정 여수서 화객선 불 1명 사망

최근 화객선이나 여객선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화재 원인의 하나로 배에 시동이 걸린 채 적재된 차량이 거론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해경은 지난 13일 여수 소리로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화객선 파이오니아호의 경우도 불이 화물차량이 실린 공간에서 시작됐다는 승객들의 진술로 미뤄 사고가 화물차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파이오니아호는 탱크로리와 트럭 등 37대의 차량을 싣고 있었으며 해경은 수산물들을 운반하는 트럭 1대만이 유독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탄 것에 화인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활어 등을 운반하는 수산물 운반트럭은 실려있는 물고기에 산소공급과 기포발생 등을 위해 선박에 차량을 싣더라도 시동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공회전 상태가 장시간 이어지면 엔진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6일 여수 백도 해상에서 불이 난 대형 여객선 살롱호 화재 때도 실려있던 활어 트럭에서 발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과수는 이 차량에서 발생한 전기합선이 선상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감정했다.

현행 관련법은 차량을 배에 실을 경우 폭풍우 등에 따른 해상 추락 등

입학문의 ▶ 062-605-1114

www.kwangshin.ac.kr

# 2013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학과	모집인원	
		수시 1차	수시 2차
인문	신학과	20	10
	국제한글어교원학과	2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0	6
	유아교육과	9	7
예능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6	4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테이스, 저스프, 작곡, 락[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20	-
총계		67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국제한글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전향일정

수시 1차모집: 원서접수: 2012. 8. 20(월) ~ 9. 11(화) / 전향일: 2012. 9. 20(목)

수시 2차모집: 원서접수: 2012. 11. 12(월) ~ 16(금) / 전향일: 2012. 11. 29(목)

특전전정

·전학과: 지역인재양성 전형

·신학과: 교역자, 목회자사모, 교회봉사자, 교역자자녀,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전형

·유아교육과: 가정주부 전형

장학제도

매학기 약 30% 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가족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지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만학도장학금 등 지급

# 2012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일반전형】

■ 주요일정

① 원서접수: 2012. 8. 6(월) - 8. 20(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형일

대학원명	학과	필기 및 면접교사
일반대학원	신학연구과(M.A.T.)	2012. 8. 24(금) 오후 2:00
	장애유아통합교육학과(M.Ed.)	2012. 8. 24(금) 오후 2:00
신학대학원	신학과(M.Div.)	2012. 8. 24(금) 오후 2:00
교육대학원	교육학과(M.Ed.)	2012. 8. 24(금) 오후 2:00

③ 합격자발표: 2012. 8. 28(화) 오후 2:00

④ 등록기간: 2012. 8. 29(수) - 31(금)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학과	전공	모집정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연구과(M.A.T.)	-	0
		장애유아통합교육학과(M.Ed.)	-	0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유아특수,초등특수,상담	0

기독교명문대학!  
진리로 미래를 여는 지성인의 요람!

QR코드를 스캔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지소 36

입학문의 ▶ 062-605-1115

2012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교설립 58주년 (1954~2012)

기독교명문대학!  
진리로 미래를 여는 지성인의 요람!

QR코드를 스캔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지소 36